

나주사랑상품권 10% 할인 추가 연장

판매액 7월까지 620억원 전남 1위
9월부터 구매해도 50만원으로 낮춰
음식점·주유소 등 가맹점 3300여곳

나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제도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에 힘입어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때 액면가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를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 기준 재난지원금 등 정책 분을 제외한 나주사랑상품권 일반판매분 실적은

전남도 내 지자체 중 1위에 해당하는 약 62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기간 할인을 유지해 국비 45억원, 지방비 17억원이 지원됐다.

시는 3차례에 걸친 국비 확보를 통해 10%할인이 적용된 판매액 한도를 당초 750억원에서 863억원까지 늘렸다.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은 10%에서 5%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나주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와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등 지정 금융기관 54개소에서 구입 가능하다.

지류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해 출시한 나주사랑 카드는 전용 앱을 통해 구입(충전)하면 된다.

상품권은 지역 음식점·마트·주유소·약국·병원 등 지정 가맹점 3300여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관내 지역농협 38개소, 우체국 17개소에서 카드발급과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화폐 일반판매 실적 도내 1위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 확대, 할인을 유지, 사용 편의 향상 등 선순환 경제의 마중물이 된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를 찾은 관광객이 맥문동으로 수놓아진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다.

장흥 우드랜드 산책길 보랏빛 맥문동 활짝

장흥군의 대표 관광지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 보랏빛 맥문동이 가지개를 펴고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우드랜드 내 매표소-만남의광장-목재문화전시관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늘어난 맥문동은 편백숲 우드랜드를 찾은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맥문동은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으로 5월부터

8월까지 개화한다. 편백숲 그늘 아래 피어난 자줏빛 꽃망울의 자태가 아름다운 꽃이다.

앞서 장흥군은 관내 대표 산림휴양 관광지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 초화류를 식재해 다채로운 경관 조성을 마쳤다.

현재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산책로만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 역량 키운다

40명, 6월말부터 7차례 교육
모니터링 활동 실습 등 진행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파트너로서 역량을 키우고 있다.

화순군은 최근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 군민참여단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역량을 강화했다.

(재)전남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 진행한 교육에는 군민참여단 4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6월 말부터 모두 일곱 차례 진행됐다.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 이해, 모니터링 방법과 지표 선정·적용 등 이론 교육과 함께 화순군 청사를 성인지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실습도 펼쳤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됐다.

군민참여단은 '여성안심지킴이 집 운영' 등 202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모니터링 활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화순군청사를 성인지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실습을 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이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정책 참여를 더욱

더 활성화하고 군민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동화와 함께하는 음악여행...강진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5~6세 유아와 부모 대상
3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10명 선착순 신청 접수

강진군도서관이 지역 5~6세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감성이 쑥쑥, 동화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도서관 2층 꾸러기 방에서 운영되며 10명(5세대) 선착순 신청받는다.

유아와 부모가 함께 동화 속 이야기를 약기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직접 스토리텔링하고 음악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

부모와 자녀의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해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유아의 신체 발달과 오감 자극을 위한 다양한 음악 놀이로

구성된다. 김명수 강진군 도서관장은 "아이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은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활동이 많은 영향을 준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음악,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 희망 주민은 30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www.gilib.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i@kwangju.co.kr



유두석(오른쪽) 장흥군수가 지난 4월 열린 숲배움터 국제 인증(LEAF)식에서 인증기를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사산백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사산백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